

구리하라 사다코(栗原貞子) 원폭문학의 현대적 의의

이영화*
Kami-ai@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인식의 전환—피해자 인식에서 가해자 인식으로 |
| 2. 원폭문학과 구리하라 사다코 | 5. 나오며 |
| 3. 금지된 이야기—전쟁 비판, 원폭 피해 | |

主題語: 구리하라 사다코(SADAKO KURIHARA), 원폭(Atomic bomb), 가해자 인식(Perpetrator recognition), 전쟁비판(Criticize the war), 핵폐기(Nuclear disposal)

1. 들어가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핵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치열한 신경전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핵문제뿐만 아니라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참사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소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언제 대참사를 일으킬지도 모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아직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본고는 이처럼 핵을 비롯한 원자력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오늘날, 무관심한 이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파멸의 길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구리하라 사다코(栗原貞子, 이하 구리하라)의 삶과 문학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원폭작품 가운데서 구리하라 문학을 택한 이유는 대부분의 원폭문학이 피해자의 시점에서 표현한 것과는 달리, 구리하라는 자신이 피폭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라는 역사를 인식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쓴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¹⁾라는 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구리하라의 작품은 원폭 피해와 반핵을 비롯해 일본이

* 일본조사이국제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조교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아시아 각국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자국민을 전쟁터로 내몬 국가를 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일본, 일본인들에게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라는 입장만 내세우는 그들의 자세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리하라의 일본, 일본인이 원폭 피해자임에 앞서 먼저 가해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문학을 통해 표현했다. 그러므로, 구리하라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리하라 문학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원폭문학과 구리하라 사다코

2.1 원폭문학이란

원폭문학이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투하로 인해 일어난 상황을 소재로 작가 자신의 체험이나 또는 타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을 말한다. “원폭문학사”를 발간한 나가오카 히로요시(長岡弘芳, 이하 나가오카)는 원폭문학을 원폭투하가 초래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잠식해 인간존재를 위협하는 사실을 제재로 하는 문학²⁾, 원폭투하로 인한 제반 악과 그에 대한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문학³⁾이라 정의한다. 원폭투하 이후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나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잡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하라 다미키(原民喜)의 「여름꽃(夏の花)」(『미타문학』1947년), 이부세 마사지(井伏鱒二)의 「검은 비(黒い雨)」(신초샤, 1966년)가 거의 같은 시기인 1970년대 전반에 각각 고등교육 국어 교과서에 채택되고, 1973년 나가오카의 『원폭문학사』가 발간된 이후였다. 가와구치 다카유키(川口隆行)는 원폭문학이 교과서에 채택된 것에 대해, “교과서라는 공적미디어, 공교육제도에 ‘원폭문학’을 게재한다는 것은 트라우마 기억에서 이야기에 대한 기억으로의 전환, 또는 같은 종류의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걸 시사한다.”⁴⁾ 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덧붙

1) 栗原貞子(1976)『ヒロシマというとき』三一書房(이 시집의 한국어 번역본은 필자에 의해 2016년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라는 제목으로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출판되었다.)

2) 長岡弘芳(1973)『原爆文学史』風媒社, p.3

3) 長岡弘芳, 上掲書, p.155

4) 川口隆行(2001.7)「原爆文学」という問題領域—「夏の花」「黒い雨」の正典化、あるいは「原爆文学史」—『プロブレマティーク・文学/教育2』同人Problematic, pp.5-7

여 “원폭문학이라는 장르의 성립 그 자체가 전후 일본이라는 국가 공간의 동일성의 구축, 탈구축, 재구축하는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⁵⁾고 지적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국가가 국민들의 공통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공적으로 승인하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나가오카는 원폭문학의 시대를 제1기에서 제4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1945-1951/1952)는 지방문화연맹 기관지 『주국문화(中国文化)』의 창간(1946년3월)부터 시작해, 보도관제로 인해 원폭투하가 초래한 비참한 상황을 알릴 수 없었던 시대, 제2기(1951/1952-1955)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 피폭의 증상들이 문학 속에 두드러지게 반영된 시기, 제3기(1956-1962)는 원수폭금지운동이 활발해지는 반면, 원폭문학작품은 양적으로 퇴조하고 질적으로도 전환점에 온 시기, 제4기(1962-1967)는 지금까지의 작품을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누고 있다. 『주국문화』의 창간이 원폭문학의 시발점이 된 것만 보더라도, 하루빨리 원폭 피해를 알리고자 한 구리하라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1983년, 원폭피해에 관한 소설, 희곡, 시가, 수기, 기록, 평론, 에세이를 모은 총15권의 『일본 원폭문학(日本の原爆文学)』(ほるぶ出版, 1983)이 발간되었다. 구리하라는 『일본원폭문학』 제13권 「시가(詩歌)」편의 <해설(1) 종말의 예감과 고발(解説(1)週末への予覚と告発)>이라는 제목의 해설을 썼다. 그리고, 원폭투하 직후 부상자로 들끓는 피난소에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감동을 그린 시 「낳게 합시다(生ましめんかな)」를 비롯해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 「아메리카여 스스로의 손으로 멸망하지 마라(アメリカよ自らの手で滅びるな)」와 수 편의 단가가 실려 있다. 곤도 베네딕트(近藤 ベネディクト)는 간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편집자가 남기는 “일본원폭문학” 총15권의 기록(元編集者がの残す『日本の原爆文学』全15巻の記録)」⁶⁾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후, 원폭문학연구회가 구성되어 『원폭문학연구(原爆文学研究)』라는 학술지가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2.2 구리하라 사다코와 원폭문학

구리하라 사다코(1913-2005)는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히로시마 현립 카베고등여학교를 졸업했다. 학창시절부터 단가와 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했으며, 17살 때 『주국신문(中国

5) 川口隆行、上掲書、pp.7-8

6) 近藤ベネディクト(2012)「元編集者がの残す『日本の原爆文学』全15巻の記録」『原爆文学研究11』花書院、pp.141-168

新聞)』⁷⁾의 문예면에 단가 신진 가인으로 데뷔했다. 구리하라의 삶을 결정짓는 큰 전환점은 1931년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정부주의자인 구리하라 다다이치(栗原唯一, 1906-1980)와 결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리하라의 남편은 1940년 징집으로 중국에 파병되었으나 병을 얻어 히로시마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중국에서 목격한 일본군의 잔학행위를 버스 안에서 만난 지인에게 말했다가 다른 승객의 밀고를 당해 기소된다. 구리하라는 남편에게서 일본군이 중국 상하이에서 저지른 잔학행위를 전해 듣고 그때부터 전쟁을 비판하는 시와 단가를 몰래 쓰기 시작하지만 전쟁 중에는 발표할 수 없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던 날, 폭심지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구리하라는 자신도 피폭을 당하게 된다.

구리하라 부부는 1945년 <주고쿠문화연맹>을 결성하여 1946년3월 기관지 『주고쿠문화(中國文化)』를 통해 전후 원폭에 의한 히로시마의 참상을 전한다. 창간호에는 구리하라의 대표작 「낭게 합시다」도 실려 있다. 패전 이듬해인 1946년, 『검은 알(黒い卵)』⁸⁾이라는 제목의 시가집을 자비로 출판하였으나, 당시 점령군GHQ의 프레스 코드에 걸려 일부가 삭제되었다. 그 중 1942년에 쓴 전쟁의 잔학성을 비판한 시 「전쟁이란 무엇인가(戦争とは何か)」는 전행이 삭제되었고, 당시 히틀러의 유럽 침략과 동맹국을 향해 비판한 시도 전부 삭제되었다. 구리하라의 이름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원폭 피해자의 시점이 아닌 전쟁 가해자의 입장에서 쓴 시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ヒロシマというとき)」를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물론, 일본의 국어 검정 교과서에도 실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낭게 합시다」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침략전쟁의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이 시야말로 구리하라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폭의 본질, 피폭자의 체험, 원폭 투하 이후의 상황을 문학을 통해 호소했고,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원수폭 금지운동에 참가하는 등 반전, 반핵,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구리하라가 남긴 문학자료는 2008년 히로시마여학원대학에 기증되어 대학 도서관내에 <구리하라 사다코 평화기념문고>가 개설되었다. 구리하라의 묘비 옆에는 ‘호헌(護憲)’이라 새겨진 큰 비가 세워져 있고, 그 뒷면에는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일본 헌법 제9조⁹⁾가 새겨져 있다. 2005년, 『구리하라 사다코 전시편(栗原貞子全詩篇)』(土曜美術社出版)이 출판되었다.

7) 주고쿠신문(中國新聞)은 히로시마시에 본사가 있으며, 주고쿠 지방을 중심으로 발행하는 지방지이다. 주고쿠(中國)지방은 일본 혼슈의 서부에 위치한 도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의 5개의 현으로 구성된 지역을 말한다.

8) 삭제된 시를 포함한 『黒い卵』의 완전판이 1983년 人文書院에서 재발간되었다.

9) 일본 헌법 제9조는 다음과 같다.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리하라 문학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중 몇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즈시마 히로마사(水島裕雅)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거의 대부분의 시인들이 앞다투어 전쟁을 미화하는 시를 썼는데 반해, 반전시를 쓴 구리하라는 참으로 보기 드문 존재”¹⁰⁾ 라고 평했다. 또한 “전후 일본과 세계에 대한 불안과 비판을 테마로 일본의 정치와 위정자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정치와 권력자를 향해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며, “구리하라의 염원은 20세기 ‘지구를 덮고 있는 전쟁을 막으려는 기도’였다”¹¹⁾고 했다. 이노카와 교(井之川巨)는 “그 당시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연전연승의 보도를 전하며 국민을 흥분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된 시 「전쟁이란 무엇인가」(1941)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구리하라가 의식이 깨어있었기 때문”¹²⁾이라고 했다. 마쓰모토 마쓰에(松本滋恵)는 “죽은 이들을 위해 사실을 기록해 남기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근거에 있다.”며, “인간에 대한 믿음과 미래와 맞서가는 자세, 평화를 염원하는 숭고하는 정신은 원폭시인 구리하라의 원점”¹³⁾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리하라 문학이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과 현대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금지된 이야기—전쟁 비판, 원폭 피해

3.1 전쟁 비판

구리하라는 생전 500편 이상의 시를 썼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구리하라는 주로 전쟁을 비판하는 시와 단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시를 주로 썼다. 이 장에서는 1946년 출판한 시집 『검은 알』에 수록된 시 가운데, GHQ의 프레스 코드¹⁴⁾에 의해 어떤 시들이, 혹은 어떤

10) 水島裕雅(2014)「栗原貞子とアジア」『人類が滅びぬ前に 栗原貞子誕生100周年記念』広島文学資料保全の会, p.86

11) 水島裕雅(2006)「栗原貞子論—原民喜との比較を中心として」『プロブレマティーク』別巻2号、同人 Problematique, p.22

12) 井之川巨(2000)「女たちの反戦詩—与謝野晶子から栗原貞子へ」新日本文学 55(6), 新日本文学会, p.11

13) 松本滋恵(2017)「『生ましめんかな』論—栗原貞子の原点としての「原爆創生記」を視野に入れて—」『広島女学院大学大学院言語文化論叢』20号、広島女学院大学大学院言語文化研究科, pp.23-38

14) 점령군 총사령부(GHQ)는 점령 행정을 일본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으나, 언론 통제는 직접 실시했다. 점령군의 비밀 기관 CCD (민간 검열지대, Civil Censorship Detachment)를 네 지구로 나누어 설치하고(제1지구 동경·제2지구 오사카·제3지구 후쿠오카·제4지구 삿포로),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잡지·단행본 등, 모든 인쇄물의 검열을 했다.(『黒い卵』人文書院, 1983년 참조)

시행들이 삭제되었는지 1983년 출판된 완전판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완전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시인 호리바 기요코(堀場清子)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완전판의 <서문>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다. 1982년, 호리바는 연합국의 일본점령기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미국 매릴랜드대학교 칼리지 파크 캠퍼스의 맥켈던 도서관에서 그 당시 삭제 흔적이 남아 있는 『검은 알』의 원고를 찾아내어 복사본을 구리하라에게 전한다.¹⁵⁾ 이런 연유로 해서 36년만에 『검은 알』의 완전판이 나오게 된다. 검열에서 삭제된 시는 모두 3편으로 「전쟁이란 무엇인가」와 「악수(握手)」가 전행 삭제되었으며, 「전쟁에 부치다(戦争に寄せる)」가 일부 삭제되었다. 그리고 단가 11수가 전행 삭제되었다. 완전판에 실려있는 시에는 삭제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 그리고 해설 부분에는 검열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교정원고를 입수하게 된 경위도 밝히고 있다. 먼저 전행이 삭제된 시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위에서 말했듯이 이 시는 전쟁 중이던 1942년에 씌어진 시로 남편한테서 일본군의 잔학행위를 전해 듣고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한 시다.

나는 잔학한 전쟁을 인정할 수 없다/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더라도/흉악한 악귀의 의도를 알 수 있다/우리는 멀찌감치서/끝없이 전쟁을 찬양하고 부추기는 음흉한 이들을 증오한다/성전이라며 정의의 싸움을 하는 곳에서/무얼 하고 있던 말인가/살인, 방화, 강간, 강도/미처 도망가지 못한 여자 들은 적군 앞에서/치마를 벗고 애원하라는 것이 아닌가//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수수밭에서는/여자에 굶주린 병사들이 여자들을 몰아넣고/온갖 만행을 저지른다/고국에서는 좋은 아버지, 좋은 형, 착한 아들이/전쟁터라는 지옥 세계에서는/인간성을 잃어 버리고/맹수처럼 미쳐 날뛴다!¹⁶⁾

『검은 알』 완전판에는 구리하라가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쓰게 된 배경이 된 남편이 그의 지인과 나눈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은, 지인에게 “아니, 전쟁의 실정을 알게 되니, 전쟁이란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라며 상하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 했다. 남편은 상하이에서 일본군이 기관총으로 쏘아 죽인 팔로군 여성 병사의 국부에 일본도를 쥘러 넣고 환성을 지르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다.¹⁷⁾

위에 소개한 시 「전쟁이란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잔학함을 비판한 「전쟁에 부치

15) 栗原貞子(1983)『黒い唄』人文書院, pp.125-126

16) 栗原貞子, 上掲書, p.26

본고에 인용되는 한국어 번역문은 모두 필자의 번역임을 밝혀둔다.

17) 栗原貞子, 上掲書, pp.135-136

다(1942년)는 앞부분의 11행이 삭제되었다. 구리하라의 회고에 의하면 이 시는 11행이나 삭제되어, 1946년판에 수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 삭제된 부분만 소개하기로 한다.

우렁찬 나팔소리! 울려퍼지는 군악!/신들린 듯한 목소리로 전승을 알리는 아나운서/부추기고 부추기는 싸움의 정열!/인간의 이성을 조금도 되찾을 수 없도록/차례로 나타나 교묘하게 독이 든 말을내뱉어대는 국가의 미술사들!/완전히 국가의 마술이 된 예술적 표현!//우리 군은 전진한다, 전진한다, 적진을 향해 전진한다/군화다, 충성이다, 폭음이다, 포성이다./요란한 전차의 전진이다. //적함의 격침이다.¹⁸⁾

이 시는 1941년12월8일, 진주만 공격이 있던 날 아침, 구리하라가 라디오 뉴스를 듣고 쓴 것으로, 구리하라는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NHK 라디오에서는 “제국 해군은 오늘 새벽 태평양에서 영,미군과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는 임시 뉴스를 되풀이해 방송하고, 하루종일 전황과 전과를 전하며, 군합행진곡과 군가를 힘차게 틀어댔다. 도조 히데키 대장과 해군 보도부장인 히라이데 히데오 대령, 육군 보도부장인 마쓰무라 대령 등 군인들이 마이크를 통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광기 어린 어조로 “황공하옵게도 천황폐하께옵서서”이라며 목이 메어 가끔 말이 막히곤 했다.¹⁹⁾

이처럼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매일 성전을 외치며 전의를 앙양시키는 내용을 보도하고, 심지어 작가와 시인들도 전쟁을 고무하는 시와 단가를 낭독하는 상황이어서, 전선의 상황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구리하라는 그 때 자신이 느낀 것을 시로 남겼던 것이다. 구리하라는 <『검은 알』의 검열에 대한 나의 생각>이란 소제목에서, 일본군의 전쟁 선동에 대한 비판과 잔학 행위를 삭제하고, 숨기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본군이 점령 지역에서 행한 잔학행위, 부녀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마찬가지로의 것을 미군도 오키나와를 비롯한 점령군의 주둔지에서 하고 있어서, 이미지가 겹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²⁰⁾

또한 구리하라는 『검은 알』의 해설 부분에서 호리바 씨의 저서²¹⁾를 인용해 호리바 기요코

18) 栗原貞子、上掲書、p.19
19) 栗原貞子、上掲書、pp.134-135
20) 栗原貞子、上掲書、pp.128-129

(堀場清子)와 오쿠이즈미 에이자부로(奥泉栄三郎)가 검열에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 주고 받은 질의 응답을 소개하고 있다. 호리바가 “일본을 무장 해제하고, 헌법 제9조를 실현시킨 점령군에게 전쟁 부정에 대한 주장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 삭제 당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오쿠이즈미는 “난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령한 미군도 결국은 같은 부류라는 것을 연상케 해, (처분의 이유 항목으로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대상이 됩니다……”²²⁾라고 대답하고 있다.

「악수」는 구리하라가 아이의 입장에서 점령군을 보고 그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나타낸 시라고 한다. 그런데도 전문 삭제 당한 것이다.

헬로우, 미군 병사 씨/어제까지 전쟁 놀이에 열중했던/작은 군국주의자들은/장난감 무기를 버리고
 호소한다/헬로우 미군 병사 씨/작은 그들의 가슴 속에/뭔가 미지의 민족에 대한/동경이 솟아난다/
 헬로우, 미군 병사 씨/어제까지 우리들의 아버지들과 싸운 것은 당신들이었나요/어른들에게서
 배운 귀축이라던 그림자는/전혀 보이지 않고/큰 입을 벌리고 밝게 웃는/미군 병사 씨/우리는 당신
 들의 큰 손과/악수하고 싶습니다.²³⁾

구리하라에 의하면 이 시는 점령군에 대한 비판이 아닌, 아이의 입장에서 미군을 환영한 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점령군의 권위주의가 패전국인 황인종의 아이가 악수를 청하는 걸 거부했을 것이라며 구리하라는 삭제된 이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²⁴⁾ 한편, 호리바와 오쿠이즈미가 주고 받은 질의 응답을 보면 호리바가 “미군에 관한 기술에는 이상할 정도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철저한 삭제 처분이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악수」의 경우는 처분을 내린 이유가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남녀간의 친밀함의 범주로 해석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쿠이즈미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남녀간의 친밀함”은 일본 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군을 우습게 보는 표현이라며 체크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²⁵⁾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상 검열에서 삭제된 3편의 시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그 외에도 단가 「파리 함락, 히틀러(パリ陥落、ヒットラー)」의 연작 11수가 진행 삭제 당했다. 히틀러의 만행을 비판하고 연합국의 편에서 쓴 것으로 읽히는데 왜 삭제 당했는지 구리하라 자신도 의아하게 여겼다고 한다.

21) 堀場清子(1982)「占領下の検閲をみる—栗原貞子詩集『黒い月』をテキストとして」『未来』未来

22) 栗原貞子、上掲書、p.127

23) 栗原貞子、上掲書、p.58

24) 栗原貞子、上掲書、p.129

25) 栗原貞子、上掲書、p.127

그러나, 이 시의 바탕에는 전쟁을 비판하고 전승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깔려있기 때문에, 점령군은 자신들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여겨져 삭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전쟁 중에는 일본 당국에 의해, 전쟁이 끝난 뒤에는 미군에 의해 모든 정보가 단절되고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구리하라는 시를 통해 감춰진 진실을 알리고자 애써온 것이다. 말하자면 구리하라는 시어를 통해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며 전쟁을 비판해 왔고, 일본 정부는, 또한 미군은 그러한 시어들을 철저히 금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검은 알』의 완전판에는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신문, 잡지 검열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자료로 첨부되어 있어 그 당시 검열 상황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원폭 문학에 대한 금기, 또는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폭의 참상을 알리려고 노력해 온 구리하라의 원폭과 관련된 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3.2 원폭 피해

『검은 알』의 후기에는 검열이 행해졌던 경위와, 원폭 문학이 놓여 있던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잡지 『주고쿠문화』의 발행을 결정하자, 구리하라는 히로시마 현청 연락사무소에 가서 잡지 발행의 뜻을 전하고 검열에 관해 문의하자, 담당자로부터 “원폭에 관한 것만은 쓰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된다. <원폭특집호>로 꾸며진 창간호는 사전 검열에서 지시 받은대로 인쇄하고 사후 검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인 포병 대위는 책상을 두드리며, “원폭의 참화가 원폭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라도 써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통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검은 알』의 경우는, 검열 삭제된 것 이외에도 사후 검열을 염려한 구리하라가 자기 규제로 스스로 삭제한 것도 있었다. 단가,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原子爆弾投下の日)」은 사전 검열이 통과된 마지막 5수를, 마찬가지로 사전 검열이 통과된 「항복(降伏)」4수 전부를 직접 삭제했다고 한다. 자가 삭제한 시는 아래와 같다.

무서운 지옥 같은 거리에서 도망가는 이들 점점 늘어나고/모두 심한 화상을 입어 옷이 살에 붙어 붙었다/처참하게 알몸으로 도망쳐온 소녀에게 아이들의 속옷을 내주었다/교외의 수용소로 가는 길에 끝없이 늘어서 있는 이재민들/구호 트럭에 탄 사상자들 화상으로 온 몸이 부풀어 올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다²⁶⁾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

26) 栗原貞子、前掲書、p.75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던 사람들 지금은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한다/아픔을 참으며 굴복하지 않고
감시 비행기 편대 아래서 입술을 깨물었다/급강하하는 거대한 기체를 자세히 바라보니 미국 비행
기가 틀림없다/초저비행으로 굉음을 울리며 창공을 재빠르게 지나갔다. (「항복」)

사전 검열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폭 투하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부분과, 그런
처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상공을 날아다니며 감시하는 미국 비행기를 표현한 부분을
삭제한 것을 보면, 구리하라의 사후 검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엿볼 수 있다.

점령군의 검열은, 미일강화조약 발효로 인해 일본이 독립한 후에도, 원폭 금기 후유증이라는 형태
로 오랫동안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원폭문학’이라고 말하려고 하면“원폭문학이라는 장르가 있
나”라는 냉소가 이어지고, 피폭 당한 작가와 시인들은 검열의 심리적인 압박과 문단 내외에서
소외받는 상황을 피로워하며, 악전고투 끝에 저마다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²⁷⁾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원폭과 관련된 용어는 금기어가 되었고, 원폭문학이라는 용어는
저항감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그리고 원폭문학에 대한 주위의 시선 또한 싸늘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원폭을 다룬 작품이 문학으로 인정받기까지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
였다. 원폭문학이 문학 장르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무렵, 구리하라는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ヒロシマというとき)』(三一書房, 1976)라는 제목의 시집을 발표한다.²⁸⁾ 시집의 맨 처음에
실려있는 「원폭으로 죽은 사치코 씨(原爆で死んだ幸子さん)」라는 제목의 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략)/1945년 8월 6일/당신은 숨을 넣은 방공 두건을/어깨에 두르고/강제 소개(疏開)를 위한
가옥 파괴 작업에 동원되었다(중략)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밤/당신은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중략)//여학교 3학년/전쟁의 의미조차 모르고/꽃도 피지 못한 채 죽어간 사치코/당신 어머니는/
당신 피부에 눌러 붙은/타서 너덜너덜해진 방공복 위에/흰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새 유카타를/걸
쳐 입혔다“옷을 지어놓고도 전쟁으로 하루도 입혀 줄 날이 없었다”며/당신을 겨안은 채 몸부림
치며 울었다²⁹⁾

27) 栗原貞子、前掲書、p.150

28) 이 시집은 『私は広島を証言する』(詩集刊行の会、1967)、『ヒロシマ未来風景』(詩集刊行の会、1974)
의 두 권의 시집과 미발표된 작품을 더해 출판한 시집이다.

『私は広島を証言する』라는 제목의 시는 1952년 아오키 쇼텐(靑木書店)에서 발행한 『原子雲の下より』
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29) 栗原貞子(1976)『ヒロシマというとき』三一書房、pp.14-15

시집 『검은 알』에는 「악몽-부상자 수용소에 시체를 인수하러 가다(悪夢-戦災者收容所に死体を引き取りに行く)」라는 제목의 단가가 실려 있다. 원폭투하 직후 씌어진 이 단가를 토대로 이후 「원폭으로 죽은 사치코 씨」라는 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시는 『원폭시초(原爆詩抄)·나는 히로시마를 증언한다(私は広島を証言する)』(1959년)에 수록된 이래, 「낭게 합시다」와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와 함께 원폭과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 등에 자주 낭독된다. 이 시는 구리하라가 가옥 철거에 동원되어 원폭 투하로 목숨을 잃은 이웃집 여학생의 시신을 찾으러 가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보고 썼다고 한다. 어린 여학생의 어머니는 살이 문드러지고 형체도 알아 볼 수 없는 시체들이 즐비한 가운데, 철제 인식표를 통해 겨우 자기 딸이란 걸 알아내고 처절한 절규를 쏟아낸다. 구리하라는 원폭 투하의 참상뿐만 아니라, “옷을 지어놓고도 전쟁으로 하루도 입혀 줄 날이 없었다”는 시행을 통해, 어린 여학생들마저 전쟁에 동원한 일본 군국주의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치코는 원폭투하로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 통치 시스템의 피해자였음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낭게 합시다」는 원폭의 참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서는 모습을 그린 시다. 구리하라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이 시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 부상자로 들끓는 캄캄한 지하 피난소에서 젊은 여성이 산기를 느끼자, 그 옆에 중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던 산파가 갓난아기를 받아내고 그 자신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간다는 내용의 시다. 실화에 바탕을 두고 쓴 시로, 패전 다음해, 잡지 『주쿠문화』 제1호에 최초로 게재되었다. 이후 태평양전쟁 전부터 패전 초기에 걸쳐 쓴 시와 단가를 모은 반전·반핵 시가집 『검은 알』(1946년)에도 실려 있다. 이 시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깜깜한 밤, 파괴된 빌딩의 지하실에서였다/초 한 자루 없는 어두운 지하실은/ 원자폭탄에 피폭된 부상자들로/가득 찼다/ (중략)그때, “제가 산파입니다. 제가 아기를 받아내겠습니다”고 말한 사람은/조금 전까지 신음하고 있던 중상자이다/ 이리하여 어둠의 지옥 밑바닥에서/새 생명은 태어났다/ 이리하여 산파는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다.30)

피폭 직후, 지옥과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숭고한 정신을 잃지 않고, 새 생명을 낳게 하려는 피폭자들의 지고한 인간애를 그린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구리하라에 의하면 이 시가 검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원폭의 비참함을 강조하기보다, 원폭에도 지지 않고 일어나는 인간의 굳건함, 아름다움에 대해 썼기 때문일 거라고 한다.³¹⁾ 이 시는 영어,

30) 栗原貞子、前掲書、p.47

불어를 비롯한 10여개 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구리하라는 전쟁 중에는 국가에 의해 금지어가 된 전쟁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시를, 원폭 투하 후에는 GHQ의 프레스 코드에 의해 금지된 이야기가 되어 버린 원폭의 참상을 시를 통해 표현했다.

4. 인식의 전환—피해자 인식에서 가해자 인식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리하라는 원폭 투하가 초래한 히로시마의 비극을 수많은 시와 단가를 통해 표현했다. 그러나, 구리하라의 시인으로서의 통찰력과 양심은 피해자 의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였다. 원폭문학의 대부분이 피해의 측면만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일본 국내에서도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자라는 담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때, 구리하라는 오히려 비극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일본군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을 시 속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위에 소개한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의 시집의 제목이 된 시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1972)는, 원폭 피해자의 시점이 아닌, 전쟁 가해자의 입장에서 쓴 구리하라의 대표적인 시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히로시마’라고 말하면/‘아, 히로시마’라며/상냥하게 대답해 줄까? /‘히로시마’라고 하면 ‘진주만’/ ‘히로시마’라고 하면 ‘난징 학살’/‘히로시마’라고 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구덩이 속에 가두고/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 죽인 마닐라의 화형/‘히로시마’라고 하면/피와 불꽃의 메아리가 되 돌아온다³²⁾

제목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히로시마’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참혹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들지, 그에 대한 답을 구리하라는 시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사실을 망각하게 하려는 국가 권력과, 사실을 망각하려는 모두를 향해 과거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 가해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마지막 행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히로시마’라고 하면/‘아, 히로시마’라는/상냥한 대답이 돌아오게 하려면/우리들은/우리들의 더러

31) 栗原貞子、上掲書、p.130

32) 栗原貞子(1976)『ヒロシマというとき』三一書房、p.103

워진 손을/깨끗이 해야 한다³³⁾

히로시마라고 하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와 국민들은 과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는 전쟁의 가해자였다는 기억을 환기시키고, 또한 원폭이 투하되기 이전, 말하자면 1945년 8월 6일 이전의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과 히로시마에 대한 기억도 돌아보게 함으로써 가해자였다는 사실과 마주보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리하라는 이 시를 통해, 그 당시 일본 국내 상황에서 아무도 감히 다룰 수 없었던 피해와 가해의 이중성을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는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는 원폭문학사에 획기를 이룬 작품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피해>의 측면을 강조하기 쉬운 원폭문학의 표현에서 한발 나아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해>가 실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 의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가해>의 결과라고 명확히 선언한 점이라고 평했다³⁴⁾. 가와구치는 “일본의 전쟁책임, 아시아 침략·가해의 역사를 표현했다고 평가되는 「히로시마라고 말할 때」는 시대의 분위기를 알기 쉽게 시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가해와 피해가 유동하는 듯한 기억의 장으로 전력을 다해 되돌아가려는 행위로부터 나온 것”³⁵⁾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해와 피해가 유동하는 기억과 마주하면서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자(死者)>와 <살아남은 우리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분단을 강요하려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격분으로 영구적 평화, 핵무기 폐기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³⁶⁾며 구리하라에 대해 평가했다.

구리하라는 이 외에도 오키나와 문제를 비롯해, 조선 전쟁, 중국 천안문사태,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문제 등 일본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눈을 돌려 시의 세계를 넓혀간다. 그 중에 한국과 관련된 「하나의 조선을」이라는 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내 이웃에 사는 조선 할머니는/어린 손자를 업고/슬픈 눈을 하고/늘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복에 있는 아들과/남에 있는 딸과/소식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의/나이를 세고 있는 늙은 어머니/생각이라

33) 栗原貞子、前掲書、p.103

34) 黒古一夫(2014)「栗原貞子の文学 原爆(核)文学史におけるその位置」『人類が滅びぬ前に』広島文学保全の会、p.55

35) 川口隆行(2007)「あやまちは繰り返しません」と誓ったわたしたち”『日本文学』56卷11号、日本文学協会、p.72

36) 川口隆行、上掲書、p.72

도 해 봤는가/민족이 분단된 동체에서/분출하는 피를/부모와 자식 형제가 적과 아군이 되어/대립해야 하는 슬픔을/(중략)/한일합병 이래/토지를 빼앗고/인간을 빼앗고/말을 빼앗아 온 우리들의 나라/대동아 전쟁 때는 백만명을 끌고가/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 당했다/조선전쟁 때는 일본 전국이 미군의/군수장이 되어/피로 더럽혀 살찌웠다³⁷⁾

이 시는 1972년 10월에 열린 7·4 통일 지원 집회에서 낭독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을 거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한국의 가슴 아픈 근현대사가 이 시 한 편에 함축되어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시인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일제 강점기 때 한국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또 그 아픔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걸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토지를 빼앗고, 말을 빼앗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해 가는 등 인간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 나라가 시인 자신의 나라였음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 일관된 자세로 반전, 반핵을 문학으로 표현해 내어 원폭 시인으로 불리는 구리하라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피폭 당한 한국인도 잊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전후 부흥도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시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조선(한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 조선(한국), 조선인(한국인)을 비극으로 내몬 일본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시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구리하라는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원폭을 사용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폭 투하로 인한 히로시마의 참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나는 히로시마를 증언한다」는 시를 발표한다. 원폭으로 인해 지옥이 된 히로시마의 상황을 묘사하며 ‘살아남은 히로시마의 증인으로서 /어디에 가더라도 증언’하겠다고, ‘이제 전쟁은 그만 두자’ 고 혼신을 다해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구리하라는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나 원폭 피해와 전쟁 비판, 일본 정부의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난 등, 자국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시, 방사능 문제, 공해 문제, 그리고 강대국의 권력자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시에 이르기까지 인류 공동의 평화를 추구하는 시를 발표해 왔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추해 현재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강연에도 참가하는 등, 시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해 갔다고 할 수 있다.

37) 栗原貞子、上掲書、p.126

5. 나가기

오늘날 전쟁과 테러가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핵실험을 비롯한 핵무기 개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증설과 그로 인한 방사성 물질 배출 등,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 불인정에 기반해 제정한 ‘평화헌법9조’라 불리는 헌법9조를 지켜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9월 19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해 헌법9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9조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를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이러한 상황들은 1945년8월6일의 히로시마를 과거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 현재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이기도 하다.

구리하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가 과거의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원폭 투하로 파괴된 히로시마의 참상과 상처 받은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반전, 반핵을 시로 표현하며 시대의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일본 국내는 물론 하와이와 독일 등,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도 참석해 전 세계를 향해 핵폐기를 호소해 왔다. 뿐만 아니라, 원수폭금지운동, 반안보투쟁, 반베트남전운동 등에 참가하며 일관되게 평화를 추구해 왔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탈핵, 탈원전을 부르짖어 온 구리하라의 선견과 행동하는 양심을 알 수 있다. 구리하라의 작품은 문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경종과 교훈을 주는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중요한 텍스트로, 또한 후세에 전해야 할 시대의 증거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 栗原貞子(1976)『ヒロシマというとき』三一書房, pp.102-103
 _____(1983)『黒い卵』人文書院, pp.18-155
 近藤 ベネディクト(2012)『原爆文学研究11』花書院, pp.141-168
 長岡弘芳(1973)『原爆文学史』風媒社, p.3, p.155
 井之川巨(2000)「女たちの反戦詩—与謝野晶子から栗原貞子へ—」新日本文学 55(6), 新日本文学会, p.11
 川口隆行(2007)「「あやまちは繰り返しません」と誓ったわたしたち」『日本文学』56卷11号, 日本文学協会, pp.3-5
 _____(2001)「原爆文学」という問題領域(プロブレマティーク)—「夏の花」「黒い雨」の正典化,あるいは『原爆文学史』—『プロブレマティーク・文学/教育2』同人Problematic, pp.5-7
 黒古一夫(2014)「栗原貞子の文学原爆(核)文学史におけるその位置」『人類が滅びぬ前に』広島文学保全の会, p.55
 堀場清子(2015)「栗原貞子詩歌集『黒い卵』再考」『文学』岩波書店

- _____ (1982) 「占領下の検閲をみる—栗原貞子詩集『黒い卵』をテキストとして」『未来』未来社(栗原貞子 (1983)『黒い卵』人文書院、pp.127-128 재인용)
- 水島裕雅(2014) 「栗原貞子とアジア」『人類が滅びぬ前に栗原貞子誕生100周年記念』広島文学資料保全の会、p.86
- _____ (2006) 「栗原貞子論—原民喜との比較を中心として」『プロブレマティーク』別巻二号、同人 *Problematique*、p.3
- 松本滋恵(2017) 「「生ましめんかな」論—栗原貞子の原点としての「原爆創生記」を視野に入れて—」広島女学院大学大学院言語文化論叢20号、広島女学院大学大学院言語文化研究科、pp.23-38

논문투고일 : 2018년 01월 02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1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要旨>

구리하라 사다코(栗原貞子) 원폭문학의 현대적 의의

이영화

본고는 핵을 비롯한 원자력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오늘날, 무관심한 이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파멸의 길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구리하라 사다코의 삶과 문학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리하라는 일본, 일본인이 원폭 피해자임에 앞서 먼저 가해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문학을 통해 표현했다. 그러므로, 구리하라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리하라 문학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구리하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가 과거의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원폭 투하로 파괴된 히로시마의 참상과 상처 받은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반전, 반핵을 시로 표현하며 시대의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구리하라의 작품은 문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경종과 교훈을 주는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중요한 텍스트로, 또한 후세에 전해야 할 시대의 증거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The Implications for the Present of Sadako Kurihara's Atomic Bomb Literature

Lee, Young-Hwa

On the days when many accidents involving atomic power including nuclear weapons have occurred, this tried to awaken the skepticism of those who are indifferent, and ask them what kind of attitude they should be in order to sustain the ordinary life, not the destruction of humanity. And examined the modern significance of Kurihara literature through Sadako's life and literature.

Kurihara objectively perceived that Japan was the atomic bomb perpetrator rather than the victim and expressed it through literature.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to introduce Kurihara's work to Korea.

Kurihara hopes that humankind living in the present will not repeat the pains of the past again and that Kurihara has played a role as a witness to the times, expressing the horrors of Hiroshima destroyed by atomic bombing, the suffering of the wounded, anti-war and anti-nuclear in terms of poem.

The work of Kurihara should be regarded not only as a literary aspect, but also as an important text of anti-war, anti-nuclear, and peace movements that give wisdom and lessons to the mankind, as well as evidence of the era to be passed down to the posterity.